

◎ 中央大學校는 지난 3月 4日, 同 大學校 신 문방송대학원 부설 「언론연구소」를 새로이 開設 하였다. 同 大學院은 국내의 言論專門研究所 不在의 現實을 감안하여 學界의 기대에 대한 부응과 건전한 언론장달을 위한 연구를 위해 同 研究所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각종 언론현상 및 그 제반문제에 대한 體系의이고 綜合的인 研究로, 국내 언론학계의 발전과 국가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同 研究所의 소장직은 同 大學의 河璟根 신문방송대학원장이 겸임하고 있다. 한편 同 研究所는 「言論研究論集」 제 1집을 3月初에 發行하였다.

◎ 大學教育協議會는 지난 3月 18日 「大學經營刷新을 위한 研究發表會」를 開催하였다. 各 大學의 關係教授와 私立大學의 財務·企劃擔當處長이 모인 가운데 私學經營의 發展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 研究發表會는 7個의 主題에 관한 發表와 討論으로 進行되었다. 各 主題의 內容과 發表者는 다음과 같다. 제 1주제 「私立大學經營의 課題와 展望」 韓瑛煥교수(中央大), 제 2주제 「私立大學組織·人事의 改善方案」 金信福교수(서울大), 제 3주제 「私立大學教育情報體제의 改善方案」 申肅媛교수(西江大), 제 4주제 「私立大學財務·會計의 改善方案」 張龍國교수(檀國大), 제 5주제 「私立大學監査·內部統制의 改善方案」 朴忠煥감사(東國大), 제 6주제 「私立大學財産增殖의 改善方案」 崔起俊處長(延世大), 제 7주제 「私立大學經營評價의 改善方案」 趙星河교수(高麗大)

◎ 1953年 4月 4日 47명의 회원으로 발족했던 韓國教育學會(會長 韓基彥)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끊임없는 努力과 성장으로 현재 회원수 1천여명과 10개의 分科委員會와 전국 시도별 10개 支會를 두고 있는 韓國教育學會는 학회창립 3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시키고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2일엔 “韓國教育學 理論體系의 摸索”

을 주제로 忠北大에서 기념학술세미나를 開催하였다. 또한 紀念學術研究論叢발간, 학회창립 30年史 간행, 會員著書日錄 및 學士錄 발간, 간행된 학술연구지 「교육학연구」영인본발간,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학술대상 및 공로상 수여 등 많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다.

◎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와 일본 국제교류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제 4차 韓·日學術交流심포지움이 지난 4月 8日부터 11日까지 日本 하코네에서 열렸다. 「韓·日 關係와 相互認識」을 주제로 열린 이 심포지움에서는 韓·日間의 정치외교, 경제, 문화 및 매스컴 등, 다양한 분야가 다루어졌고 한국측에서는 南惠祐(韓日協力委) 金禹昌교수(高麗大), 李洪九교수(서울大) 등 14명이 참가했다.

◎ 檀國大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一石學術賞」 운영규정을 發表하였다. 一石 李熙昇博士의 業績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이 學術賞은 年 1回, 人文·社會·自然科學 및 藝體能의 4개 분야에 걸쳐 施賞하게 된다. 수상후보 자격은 現職教授는 모두 해당되나, 다만 4편 이상의 研究論文이 있거나 論著 1종 이상의 研究業績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研究物도 국내외에서 수상했거나 3인 이상의 共同研究物, 學位論文으로 발표된 研究物, 특정기관과 계약, 발표권을 제약받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 한편 금년 11月 3日부터 시상되는 이 學術賞의 審査對象 論文은 82년 9月 1日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制限된다.

◎ 韓國化學工學會(會長 金英傑)는 제 3차 太平洋지역 化學工學 學術大會를 오는 5月 6日부터 14日까지 9日 동안 서울 롯데호텔에서 開催한다. 이 學術大會에는 美國·캐나다·日本 등을 비롯한 24개국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여 약 3백여편의 學術論文을 發表할 예정이다. 특히 本 學術大會에서는 「화학공학에의 컴퓨터응용」이 국내에 처음으로 紹介된다.